

바다 위의 독립봉우리, 리시리섬(利尻島)

해면 위로 우뚝 솟은 화산섬

리시리섬은 왓카나이시(稚内市)의 해안에서 약 20 km 떨어진 섬으로 섬의 둘레가 약 60 km이며, 거의 원형의 섬으로 섬 전체에 리시리산(利尻山)이 자리잡고 있다.

리시리산은 표고 1,721m로 약 20만년 전에 생성되어, 약 7,000년 전 활동을 멈춘 화산이다. 전체적으로는 산기슭을 길게 당긴 듯한 후지산(富士山)형의 산이지만, 산정상 일대는 좁은 능선에 날카롭고 뾰족한 암석 봉우리군이 자리잡고 있으며, 깊은 골짜기가 몇 줄기나 뻗어있는 몹시 거친 모습을 하고 있다. 작은 연못은 대부분이 말라있으며, 산기슭에는 용수(湧水)가 많다. 산기슭에는 기생화산이 몇 개있는 것 외에 히메 습지(姫沼)·오타도마리누마습지 등의 호수와 습지가 있다.

섬의 독특한 기상

해면에서부터 높은 산이 솟아있는 리시리섬(利尻島)에는, 섬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기상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바람이 강하며, 산정상 부근은 특히 바람이 강하다. 그러나, 저지대에서는 섬의 한쪽 편에서 강풍이 불고 있어도 반대편은 바람이 없거나, 섬의 절반이 짙은 안개가 있어도 반대편은 맑은 하늘이 나타나기도 한다.

바다위에 솟아있는 리시리산



칼럼

뚜렷한 식생의 수직분포와 고산대의 저하

독립봉이라는 특성때문에 리시리산(利尻山)의 식생은 고도에 의한 변화를 알기 쉽다. 좁은 평지에는 해안초원이 있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분비를 우점으로 사스레나무 등의 활엽수가 혼효된 침엽수가 많은 상림이 나타난다. 표고 약 500m 상부에는 사스레나무, 두메오리나무 등의 숲에서 눈잣나무도 출현한다. 1,100m 근처의 위쪽은 눈잣나무와 고산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눈잣나무대가 출현하는 고도를 다른 산과 비교하면, 혼슈 중부에서는 약 2,400m, 홋카이도 중앙부의 다이세츠잔(大雪山)에서는 약 1,800m로 리시리산에서는 비교적 고도가 낮은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리시리산이 보다 북방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기상조건이 험난한 해상의 독립봉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리시리산·식물의 수직분포

